

미사 시간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06:00						
09:00	06:00		10:00		10:00	
11:00						
19:00		19:00		19:00		16:00
유아세례 3,6,9,12월 첫(토) 오후4시 미사후						
예비자교리 주일: 10:30, 목: 20: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공덕동



수호성인 : 그리스도 왕
121-801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4길
15-1(공덕동 성당)
cafe.daum.net/gongdukdong

주임신부 : 이 재 을(사도 요한)
☎ 718 - 1044
수녀원 : 정 경 보(까리 따 스)
김 미 선(이 사 야)
☎ 718 - 1043
사무실 : ☎ 718 - 1040 ~ 1
총 회 장 : ☎ 010-3629-9625
연령회장 : ☎ 010-5701-0185
사랑의집 : ☎ 718 - 1042
F A X : ☎ 714 - 6258

♣ 새해(1월) 신앙생활

- 새해 자신의 생활을 설계합니다.
- 예수님께 가정과 공동체를 봉헌합니다.
- 아침, 저녁기도와 평일미사에 참여합니다.
- 하느님 말씀을 읽고 생활 속에 실천합니다.
- 주변 불우이웃을 찾아보고 돕습니다.

♣ 제5차 성경을 읽읍시다

금주 성경읽기는 **욥기** 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며 성령의 칼입니다.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능력입니다.

매일 6~7쪽을 읽습니다.

주보8면 매일 성경 요일분을 읽습니다.

창세기~요한복서를 읽습니다.

읽고난후 구절을 묵상합니다.

♣ 구반장·교사 임명장 수여

대 상 : 각 구역반장, 초·중고등부 교사

34구역 : 4반장-김순옥 리더아

36구역 : 4반장-정희원 로사리아 9반장-하경애 크리스티나
10반장-박선화 헬레나 12반장-이영숙 벨라벳다

37구역 : 2반장-강선자 테레사 6반장-이연오 테레사

♣ 오늘 사회복지 2차 헌금

사랑의 음식, 다문화 가정, 장학기금 모금

♣ 2015년 본당 사업계획 설명회

일 시 : 1. 18(일) 교중미사 후

참석대상 : 사목위원, 구역장, 제단채장, Pr 단장 등

♣ 제31차 소공동체 리더 교육 (장소: 소성전)

주 제 : 개인비전(성찰·희상)

일 시 : 2015. 1. 13(화) 오후 8시

강 사 : 김영옥 봉사자

♣ 마르코복음·사도행전 성경공부

오전11:00(금) - 마르코 반 : 이재을 신부
사도행전 반 : 정경보 수녀

오후 8:00(금) - 마르코 반 : 김미선 수녀

♣ 노후핵발전소 연장운전 금지 천주교 서명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가 연장
가동되지 않도록 서명운동에 참여합니다.

♣ 제대 초 봉헌을 받습니다

봉헌 접수 : 성당 마당, 사무실

일년동안 미사봉헌 때 제대에 사용 할 초 봉헌
(개인, 단체별) 받습니다. (초 1개 : 9,000원).

♣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오심 환영

- 가정 축복식 있습니다.
- 전입 신자들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 지난 1년간 주보 제본 해드립니다.

♣ 임산부 축복 미사

2. 1(일) 11:00에 임산부 축복미사를 드립니다.

본당 교우 및 지역 주민분들 중 임산부께서는
사무실로 신청 하십시오.

♣ 첫 영성체 어린이 교리

대상 : 초등학교 3~6학년

교리시작 : 2. 28(토) 15:00 접 수 : 사무실

부모와 어린이 첫 만남 : 2. 7(토) 15:00 (3층 성가대연습실)

♣ 본당 12월 재정현황

수 입		운 영 비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교 우 금	52,239,000	제 전·전 교 비	7,601,530
주일헌금	15,815,950	단체보조비	8,588,890
감사헌금	5,320,000	교구납부금	10,991,000
특별헌금(인권주일)	1,308,200	통일기금	1,600,000
기타목적헌금(사회복지)	4,131,240	특별헌금	3,449,650
기타헌금(구유예물)	7,074,500	사제관운영비	600,000
성물판매	1,000,000	사제성무·특별	2,640,120
부속기관기타수입(봉헌초등)	2,000,000	수녀생활·성무·특별	3,110,000
건축헌금	240,000	본당·기타 행사비	2,314,600
성무지원금	1,810,000	자선 찬조비	4,836,900
이자수입	4,863	인건비·상여수당	7,389,350
		퇴직급여(실장)	2,207,507
		통신비·수도광열비	3,932,540
		소모품·도서인쇄비	1,123,380
		용역·복리후생비	1,576,560
		수선비·회의비	539,000
		보험료,수수료	401,290
		시설비,조경비	1,715,000
		당월임여금	26,326,436
계	90,943,753	계	90,943,753

※ 건축헌금 계좌번호 : 우리 1005-501-896248 (서울대교구천주교 유지재단)
현 잔액 : 17,158,457원

♣ 성가 번호 (주님 공헌 대축일)

구 분	시작	화답	봉 헌	성 체	마침
금주	1	34	216,46,215,	159,160,161	31
다음	64	28	218,428,217	178,179,183	49

구 분	송년, 1/1대축일	주님 공헌 대축일 (1. 4)						성가정 축일
신자수	미사 4회	16:00	06:00	09:00	11:00	19:00	계	12. 28
2,814	660(23.5%)	119	66	183	322	153	843명(30%)	887명(31.8%)

♣ 말씀의 꽃송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는 그를 대단히 여기시고 그에게 마음을 기울이십니까?”(욥 7, 17).

욥 기

욥기는

무죄한 사람도 슬픔과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욥기에서는 현세의 행운과 복이 하느님의 축복이요, 선행과 성실의 대가가 구원이라는 진리가 고통에 의해서 도전을 받는다. 그는 무죄한 몸으로 고통을 당하나 하느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앙을 고백한다.

이름 제정 과정

욥기는 구약성경의 세 번째 부분인 성문서에 속하는 지혜문학으로 욥기라는 성경 이름은 이 책의 주인공인 ‘욥’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저 자

욥기라는 독창적인 견해를 남긴 저자는 의인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전통적이 아닌 새로운 견해를 집요하게 추구했던, 유난히 고통과 하느님의 정의에 민감했던 사람으로 여겨진다.

저술 연대

기원전 13세기의 모세 시대부터 가까이는 기원전 2세기의 마카베오 시대까지 들고 있는데, 바빌론 포로기 전·후라고 본다. 욥기는 고대에서부터 내려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였을 것으로 본다.

저술 동기

욥기는 고통에 관해 묻고 항의하는 책이고, 하느님의 정의와 함께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이다. 고통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는다. 의인이 당하는 고통은 인간 삶과 연관된 하나의 신비다. 문제는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가이고, 궁극적으로 문제의 답을 얻을 곳은 영원하신 하느님, 창조주 그분 안에서이며, 결국 답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뿐이다. 욥은 하느님의 놀라우신 현존을 체험하고 그분께 승복한다.

♣ 기도회 은혜의 말씀

일 시 : 1. 14(수) 19:30 (강사 : 까리파스 수녀)

♣ 단체 모임

안 나 회 : 1. 16(금) 11:00

성체조배회 : 1. 17(토) 10:00

분 도 회 : 1. 18(일) 교중미사후

사 도 회 : 1. 18(일) 교중미사후

성소후원회 : 1. 18(일) 교중미사후

시니어 아카데미 : 방학

사랑의음식 나눔 : 방학

여성총구역(반)장 월례회의: 매월 2째주 금요일

남성 울뜨레야팀 소모임 : 매주 주일 10:00

남·여성 울뜨레아 회합 : 매월 2째주 주일 12:30

♣ 매일 성경 읽기

욥기

날 짜	성경구절	내 용
1/11 (일)	욥 1,1-5,27	착한 욥에게 야훼께서는 사탄으로 하여금 고통의 부스럼을 앓게 하다. 자기의 탄생을 저주한다. 친구 엘리파즈가 죄 지은 욥이라고 비아냥거리다.
1/12 (월)	욥 6,1-9,35	욥이 자신의 죄 없음을 고백하자 친구 빌닷은 고통은 그와 아들들의 죄 값일 것이라고 말한다. 욥은 고통 중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을 고백한다.
1/13 (화)	욥 10,1-13,28	친구 초바르는 욥의 고통이 하느님의 지혜로 해결된다고 말한다. 무죄한 자신을 입증하면서 하느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욥을 언급한다. 욥은 하느님께 두 가지 부탁을 한다.
1/14 (수)	욥 14,1-17,16	엘리파즈가 욥에게 죄를 인정하라는 말에 자신의 대변자 하느님이시고, 그분만이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고백한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느님만을 희망하고 있다.
1/15 (목)	욥 18,1-21,34	빌닷의 두 번째 충고, 악인은 죽고 마는 것이라고 충고하자 욥은 자신의 결백성을 주장하며 그분이 끝내 그 자신의 변호인, 후견인임을 주장한다.
1/16 (금)	욥 22,1-27,23	엘리파즈와 빌닷의 하느님께 대한 불신의 말에 욥은 끝까지 하느님을 옹호하며, 고통을 주시더라고 그 하느님을 저버릴 수 없다고 분명코 선언한다.
1/17 (토)	욥 28,1-31,40	욥이 끝끝내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한다. 오로지 전능하신 분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결백성과 솔직성을 나타낸다. 오직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느님께 의탁한다.

♣ 구역별 미사전례·성전 청소

미사전례 : 1. 11(일) : 24,25,32 구역

청 소 : 1. 16(금) : 26,27,28,29,30 구역

♣미사안내 : 안 나 회(1.11) 성 모 회(1.11)

♣ 차 봉 사 : 안 나 회(1. 4) 성 모 회 (1. 11)

♣ 우리들의 정성 (12. 29 ~ 1. 4)

교 무 금(88세대)13,430,000

주일 헌금(1. 4, 843명).....2,972,800

가정봉헌예물(12.31~1.1).....4,540,500

건축헌금(반병섭다미아노).....30,000

감사헌금(7명).....700,000

신정균 요셉피나 강병선 바오로 이호재 마태오

김수호 베드로 기수혜 베로니카 김연찬 프란치스코

하운경 요셉피나